정보

Alexander Glazunov:

Symphony No. 7 in F major, Op. 77 “Pastoral”
작곡가: Alexander Glazunov (1865–1936)
작품명: Symphony No. 7 in F major, Op. 77 “Pastoral”
장르: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작곡 시기: 1902년 7월 완성
초연: 1903년 1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초판: 1903년, Leipzig, M. P. Belaieff, plate 2401
헌정: Mitrofan Belyayev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7(Glazunov)

Alexander Glazunov의 Symphony No. 7 in F major는 ‘Pastoral’이라는 별칭처럼 밝은 조성과 부드러운
관현악 색채를 품은 네 악장 교향곡이다 . 1902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Allegro moderato, Andante, Scherzo, Finale의 순서로 약 30–38분 동안 이어진다. 베토벤의 전원적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지만, Glazunov는 목가적 풍경을 묘사하는 대신 러시아적인 선율 감각과 고전적인 형식, 반짝이는 목관과 하프의
색을 자신의 방식으로 엮었다.

개요
Glazunov는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배운 러시아 작곡가이면서 서유럽의 교향곡 형식을 능숙하게 다룬
인물이었다 . 제 7번에서는 두 전통이 충돌하기보다 온화하게 포개진다. F장조의 밝음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 목관은 목동의 피리처럼 가벼운 선율을 내놓으며, 현악은 넓은 호흡으로 그 선율을 받친다. 금관과 타악기는 풍경을 과장하는 효과음이 아니라, 곡의 큰 문장을 세우는 기둥처럼 쓰인다.

‘Pastoral’은 작품의 분위기와 청취 방향을 알려 주는 별칭이다. 특정한 줄거리나 장면 순서가 정해진
표제음악은 아니다. AllMusic의 James Leonard는 이 교향곡이 베토벤의 F장조 「전원」 교향곡과 독일 목가 전통을 연상시키면서도 , 목동풍 선율에 러시아적인 억양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이 비교를 염두에 두면,

Glazunov .

## 

IMSLP 1902 7 , 1903 Leipzig M. P. Belaieff . Mitrofan Belyayev 143 . 1903 1 26 . 7 Glazunov , *The Seasons* .

## 

30–38 . AllMusic 33 50 , Otaka 34 12 , Kütson 36 08 . 3(3 ), 2, 2, 2

- : 3(3 ), 2, 2, 2
- : 4, 2, 3,
- : , , ,
- :
- : 1·2 , , ,

3 , , , , , , , . , , , . , , , , , , . 3 4 ·2 ·3 · , , , , , , .

## 

# I. Allegro moderato

F , , . , , , , . AllMusic Andante Glazunov . , , , , , , ,

이 악장에서 베토벤의 「전원」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새벽의 생기가 번지는 듯한 표정과 F장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그러나 Glazunov의 주제는 베토벤의 모티브를 인용하지 않으며, 곡의 진행도 자연의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 선율과 형식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목가적 인상을 만든다.

# II. Andante

두 번째 악장은 작품의 중심을 깊고 조용한 빛으로 바꾼다. 장중한 금관 코랄이 먼저 공간을 열고, 밝은 목관이 그 위에 가느다란 선율을 얹는다. MusicWeb의 Kütson 평론은 이 시작을 러시아 정교회 성가를 떠올리게 하는 코랄과 명랑한 목관의 결합으로 들었고, 같은 평론은 뒤이어 야상곡 같은 고요가 펼쳐진다고 묘사했다.

Andante의 평온은 정지해 있지 않다. 현악은 긴 선율을 조금씩 굽히며 화성의 방향을 바꾸고, 목관은 그 사이에서 작은 빛을 끼워 넣는다. 하프의 울림은 풍경을 그림처럼 그리기보다 각 성부 사이의 공기를 드러낸다. 느린 악장이지만 소리가 한곳에 모여 굳지 않고, 먼 곳으로 시선을 옮기듯 계속 움직인다.

# III. Scherzo: Allegro giocoso

Scherzo는 앞의 Andante에서 멀리 뛰어 나오는 듯한 활기를 보인다. 빠른 리듬과 짧은 음형이 서로 교대하고, 목관은 가벼운 장식을 얹어 음악의 표면을 반짝이게 한다. Glazunov의 춤은 거칠게 몰아치는 민속 춤보다 잘 다듬어진 야외 축제에 가깝다. 현악의 탄력과 목관의 재치가 곡의 중심을 이룬다.

AllMusic은 제 7번의 Scherzo가 그의 다른 교향곡에 비해 관습적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반면 Otaka와 Kütson을 다룬 평론들은 목관의 색과 리듬의 명료함에서 이 악장의 매력을 찾는다. 두 관찰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형식은 익숙하지만, 어떤 음색과 템포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가벼운 유머와 세공된 관현악이 다른 비율로 드러난다.

# IV. Finale: Allegro maestoso

피날레는 첫 악장의 밝음과 Andante의 의식을 함께 데려온다. 금관과 타악기가 더 넓게 울리고, 목관은 앞에서 들은 선율의 윤곽을 다시 밝힌다. `Maestoso`라는 빠르기 표시는 장중함을 가리키지만 음악은 무겁게 가라앉지 않는다. 각 악기군이 색을 바꿔 가며 합쳐지면서 명랑한 종결을 향해 나아간다.

AllMusic은 이 결말의 축하가 제 5·6번 교향곡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고 보며, 가운데 발전부가 전체와 완전히 결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덧붙인다. 다른 연주 평론은 마지막 악장이 첫 악장의 기쁨과 느린 악장의 의식적인 분위기를 한데 모은다고 들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피날레의 밝음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앞선 세 악장의 색채를 다시 배열한 결과다.

# ‘Pastoral’이라는 표정

Glazunov의 목가성은 자연을 직접 묘사하는 방식보다 음색과 호흡에서 느껴진다. 플루트와 피콜로의 높은 음, 오보에의 유연한 선, 하프의 투명한 화음, 현악의 넓은 곡선이 밝은 공기를 만든다. 그러나 금관 코랄이

등장하는 Andante에서는 그 공기가 밤의 정적처럼 어두워지고 , Scherzo에서는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뀐다. 작품은 한 가지 풍경을 고정하지 않고 하루의 빛이 변하듯 색을 바꾼다.

AllMusic이 말한 ‘러시아적인 억양 ’은 특정 민요를 직접 인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목관의 선율이 서유럽식 균형 안에서도 러시아 음악 특유의 굴곡과 발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교다. 베토벤의 「전원」과의 연상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Glazunov는 독일식 교향곡 형식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선율과 관현악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

Glazunov의 교향곡 세계에서
제 7번은 Glazunov의 창작 후기에 놓인다. 그는 이미 The Seasons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관현악 색채를 다듬었고, 이 교향곡에서는 그 기술을 더 긴 형식에 적용했다. 제 1악장의 선율선은 촘촘하게 맞물리고, Andante는 몇 개의 긴 곡선으로 넓은 시간을 만들며, Scherzo와 Finale는 선명한 색과 리듬으로 균형을 잡는다.

오늘날 Glazunov의 음악은 바이올린 협주곡과 The Seasons에 비해 공연장에서 덜 자주 만난다. MusicWeb 의 Kütson 평론은 이 상황을 작품의 질과 별개로 지적하며, 제 7번에서 신선한 색채와 예상 밖의 전환을 발견한다. 이 교향곡은 급진적인 실험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미 익숙한 형식 안에서 선율과 음색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지 보여 준다.

판본과 연주 시간
1903년 Belaieff 초판의 악장 순서는 Allegro moderato, Andante, Scherzo: Allegro giocoso, Finale: Allegro maestoso다. 후대의 카탈로그와 공개 악보도 이 순서를 따른다. 음반 시간은 Anissimov 32분 53초, Otaka 34분 12초, Kütson 36분 08초처럼 서로 다르지만, 차이는 템포와 녹음 조건에서 생긴다. 느린 악장의 긴 호흡을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따라 전곡의 목가적 온도도 달라진다.

Otaka의 BIS 녹음은 MusicWeb에서 명료하고 사려 깊은 접근으로 묘사되며, Serebrier의 Warner 음반은 더 따뜻하고 긴 호흡을 가진 연주로 평가된다. Järvi의 Orfeo 음반에서는 Andante 첫 주제의 드라마적 저류와
밝은 목관이 부각된다. 이 차이를 들으면 Pastoral이 느리기만 한 음악이 아니라, 호흡의 속도와 음색의
초점으로 성격이 바뀌는 교향곡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레코딩
Tadaaki Otaka / BBC National Orchestra of Wales (BIS-CD-1388, 1998): 제 7번의
길이는 34분 12초다. MusicWeb은 느리고 명료한 템포가 목가적 이미지에 잘 맞으며, 베토벤의
「전원」과 공유하는 풍경의 인상이 강하다고 평했다. 목관의 세부와 넓은 호흡을 함께 듣고 싶을 때
좋은 출발점이다 .

José Serebrier /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Warner Classics 2564 63236-2): 제 4번과 제 7번을 함께 담은 음반이다. Gramophone은 Serebrier가 선율을 길게 펼치고 따뜻한 교향적 울림을 만든다고 보면서, 큰 음량에서 악기군의 초점이 조금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Otaka의 더 선명한 음향과 비교하면 느린 악장의 표정 차이가 드러난다.
Neeme Järvi / Bamberg Symphony Orchestra (Orfeo, 1986): Classics Today의 Victor Carr Jr.는 Andante 첫 주제가 드라마적 저류를 품고, Järvi가 구절을 노래하듯 이어 가며 밝은
목관을 끌어낸다고 평했다. 빠르게 밀어붙이는 리듬과 서정적인 선율을 함께 원할 때 선택할 만하다. Mihkel Kütson / Niederrheinische Sinfoniker (MDG 9522235-6, 2021): 제 7번은 36분 08초다. MusicWeb은 금관 코랄, 명랑한 목관, 야상곡 같은 고요가 공존하는 Andante와 서두르지
않는 긴 호흡을 장점으로 들었다. 실내악적인 온기와 현대적인 SACD 음향으로 작품의 색채를
살핀다.

주요 자료

IMSLP, Symphony No. 7, Op. 77: 1902년 완성, 1903년 Belaieff 초판, 헌정, 악장 순서와 편성.

MusicBrainz, Symphony No. 7: 작품 식별자, Op. 77, 작곡 ·출판 ·헌정 관계.

Schott Digital 카탈로그, Kalmus 재인쇄: 초판 총보 정보와 편성 약호.

AllMusic, Symphony No. 7 in F major: ‘Pastoral’ 별칭, 베토벤과 독일 목가 전통의 연상,
대위법과 악장에 대한 해설.

Gramophone, Serebrier·Otaka 비교: 느린 악장과 녹음 음향의 비교.

MusicWeb, Otaka 녹음: BIS 녹음의 시간과 목가적 청취 인상.

MusicWeb, Kütson 녹음: 2021년 녹음의 시간, Andante의 코랄 ·목관 색채와 연주 평가.

Classics Today, Järvi 녹음: Andante의 드라마적 저류와 Bamberg Symphony의 목관 음색.

Naxos 8.553769, Anissimov 녹음: 1997년 Moscow Symphony 녹음과 악장별 시간.

Hallé Archive: 1903년 2월 26일 첫 Hallé 공연 기록.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17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7:17 UTC by 안준영